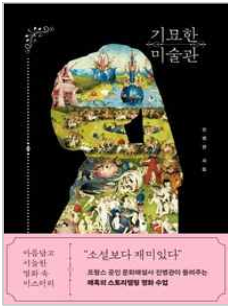


📖 2025년 2월 도서관 추천도서 📖

겨울의 마지막을 미술관에서 즐겨보세요~~
미술관에 가기 어렵다면 책에서 영화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기묘한 미술관



“소설보다 재미있다”

프랑스 공인 문화해설사 진병관이 들려주는 매혹의 스토리텔링 영화 수업

『기묘한 미술관』에는 문화해설사 진병관이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화 속 미스터리를 소설보다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의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을 따라 100여 점의 영화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뿐 아니라, 익숙하게 바라보았던 그림들이 다시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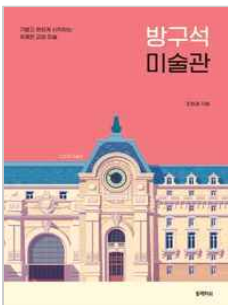
진병관 지음 | 빅피시

90일 밤의 미술관

유럽 각지의 미술관에서 수천 명을 감동시킨 5명의 도슨트가 생생하게 전하는 미술 이야기 현지 미술관에서 오래 활동한 도슨트들과 함께 서양 미술사를 빛낸 작품들을 만나본다. 90일 동안 집에서 유럽의 미술관을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지식가이드 투어로 유명한 ‘유로자전거나라’ 출신 도슨트 5명이 수많은 여행객에게 전한 감동적인 미술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다. 각자 활동한 나라와 미술관별로 구성해 실제 도슨트의 해설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화가의 삶과 그림 속 이야기를 통해 미술 감상의 폭을 넓혀보자. 이윤규 지음 | 동양북스



방구석 미술관



세상에서 가장 술술 읽히는 미술책!

이 책은 2018년 출간 이래 방송과 광고업계에까지 ‘방구석 신드롬’과 미술 열풍을 일으킨 원조 미술책으로, ‘미술은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대중들을 미술에 흠뻑 빠지게 만들며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술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사람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미술계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미술을 시작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방구석 미술관》을 만나보자. 높게만 느껴지는 ‘미술 문지방’을 가볍게 넘게 될 것이다. 조원재 지음 | 블랙피시

미술관에 가면 머리가 하해지는 사람들을 위한 동시대 미술 안내서

영국 왕립 미술원 회원이자 크로스드레서인 그레이슨 페리가 쓴 콤팩트한 동시대 미술 입문서. 「그는 이 책에서 동시대 미술의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특유의 블랙 유머를 섞어 가며 속속들이 파헤친다. 또한 예술가의 내밀한 속마음을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들려준다. 보통의 감상자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동시대 미술이라는 모호하고 현학적인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그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역 예술가라면 이 책에서 따듯한 위로와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의 느낌뿐 아니라 경력을 만드는 강력하고도 기발한 팁을 얻어 갈 수 있다.

그레이슨 페리 지음 | 원더박스

